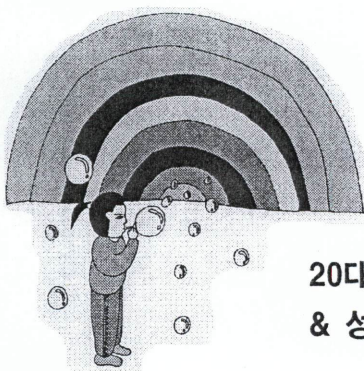

2008년 새터 준비를 위한 성인지간담회 反성폭력 운동으로 시작하는 1년

■ 일 시 : 2008년 2월 4일(월) 늦은 4시 ~

■ 장 소 : 논지당 세미나실

■ 순 서

- + 성평등 자치규약으로 한해나기 || 총여학생회
- + 공동체 문화와 反성폭력 논의 || 성희롱·성폭력상담실
- + 나만의 생존전략 나누기
- + 질의응답 및 토론



20대 총여학생회 성큼 다가서는 일상의 여성주의<틈을 누비다>
& 성희롱·성폭력상담실

총여학생회 발제문

공동체 (놀이) 문화와 반성폭력 논의

김이정민(성희롱·성폭력상담실 전문상담원)

자치규약과 반성폭력 학칙 등 학내 반성폭력 운동을 위한 규정과 지침들은 사건 해결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는 결국 성폭력 예방과 남성중심적이고 성폭력친화적인 성문화를 성찰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성폭력은 특정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성별에 근거한 권력 관계가 작동되는지,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성차별적으로 구성되는가를 보여주는 여성주의 의제입니다. 성폭력이 일상, 문화의 문제라는 것은 공동체 문화의 변화가 대학 반성폭력 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임을 말해줍니다. 성인 지적 관점에서 대학 공동체 문화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성폭력을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학생 사회의 놀이 문화, 공동체 문화, 술자리 문화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인지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각 단위에서 새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할 때 그 관점과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자치규약을 프로그램에 녹여낼 때 고려해야 인식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폭력(성희롱) 개념에 대한 이해; ‘성폭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는 학칙이나 자치규약에 나와있는 성폭력의 정의나 개념을 알고 있는가의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이 성폭력을 성폭력으로 만드는가’, ‘광의의 성폭력 개념은 성별을 둘러싼 권력관계에 대한 어떤 문제의식으로 제기되었는가’ 등 반성폭력 운동 일련의 흐름과 문제의식, 비판의 지점이 갖는 의미와 그 정치학을 모두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치규약, 학칙을 매뉴얼로 이해하지 않기; 성폭력의 판단기준은 상황과 맥락, 피해자의 느낌과 경험에 따라 달라집니다. 성폭력은 여성과 남성을 구분 짓는 경계에서, 우리 사회의 성별 권력관계의 문제로 발생하지만 실제로 그 권력은 눈에 보이는 대결구도가 아니라 관계와 일상적 실천들 속에서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배와 후배/친구와 친구 사이에서 농담이 폭력으로 다가오는 당황스러운 순간, 피해자의 애매모호한 느낌과 감정, 친밀함과 폭력의 경계에서 피해자의 경험은 단일하지도, 명백하게 시작과 끝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치규약이나 예방교육 책자에 제시된 사례들이 모든 경우에 성폭력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참고할 때는 제시된 사례가 성폭력이 되는 맥락과 문제가 된 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정한 행위들을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A는 성폭력이고 A1은 아니다”라는 방식으로 탈맥락화하여 매뉴얼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성폭력을 특정 항목이나 본질적인 실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그것을 하지말자라고 접근하는 태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성폭력이 문제가 되는 지점, 성별권력관계의 작동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않은 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할” 문제로만 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공동체 문화 만들기의 의미; 따라서 여성주의적 관점을 갖고 공동체 문화를 만드는 것은 성희롱예방교육을 포함시키는 것, 자치규약 포스터를 부착하는 것, 게임을 할 때 여성과 남성을 동등한 숫자로 구성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성주의는 기존의 판에 여성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매개로 작동하는 권력의 기제를 비판하고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은 대학 공동체 문화에 관한 간담회 자료로만 참고하시고 기타 인용이나 배포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 (놀이) 문화의 변화를 위한 몇 가지 진단들

1. 새내기가 되다!

겨울 방학은 언제나 새해를 시작한다는, 그리고 새내기를 맞이한다는 설레임으로 들떠있다. 아직은 쌀쌀한 2월부터 신촌 거리에서는 갖가지 모양의 과반 깃발과 새내기 환영 술자리, 응원 합성을 만날 수 있다. 새내기 시절 구호에 맞춰 아카라카 구호를 외쳐 보지 않은 연대생이 얼마나 될 것이며 둥그런 원을 그리며 응원가에 발맞춰 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긴 입시의 터널을 지나 이제 당당하게 ‘대학생’이라 불리게 된 새내기들에게 대학 문화는 ‘뭔가 있을 것 같은’ 설레임을 준다. 합격증을 받으러 집을 나서던 아침, 기대와 함께 가졌던 약간의 두려움이 나 어색함은 선배들의 환호 속에 사라지고 부르는 응원곡의 수가 늘어갈수록 내가 대학이라는 집단에 들어서고 있다는 묘한 안도감으로 바뀐다. 응원 문화, 술자리 문화는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에, ‘대학생들만의 문화’로 낭만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래서 새내기들은, ‘간만에 놀 구실을 잡은’ 선배들과 함께 3월 내내 열심히 논다.

2. 대학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불안한 취업시장은 점점 더 많은 대학생들을 도서관에서 보내면서 과반 모임도, 잔디밭에서 밤새 술 마시는 풍경도 많이 줄었지만 개강모임, 신입생 환영회라고 하면 떠오르는, 해마다 봄이 되면 반복되는 스테레오 타입은 바뀌지 않는다. 새터에서 대동제, 연고제로 이어지는 그 놀이 문화, 그 속에 정말 대학 문화가 있을까?

1월말부터 배우기 시작한 아카라카와 응원은 새터에서 완전히 몸에 익고, 5월 축제에서 빛을 발하며 연고제까지 이어진다. 그 사이에 개강파티, 종강파티, 시험 뒷풀이 등의 크고 작은 행사들이 채워져 한 해가 지나간다. 갓 입학을 한 시기에는 함께 술마시고 응원하고 노는 것으로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는 소속감을 느끼고 선후배, 동기 사이의 끈끈한 우정을 확인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조금씩 응원이 지겨워지기 시작할 때, 술에 취한 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치다가도 다음 날 아침이 되면 그 전보다 별반 더 친해진 것도 없이 헤어진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때부터 뭔가 빠격거리게 된다.

이 때 부터 반, 과라는 이름 안에 하나 되었던 새내기들은 각자 다른 길을 걷기 시작한다. 반에 흥미를 더 갖지 못하게 된 이들은 각자 더 관심이 있는 동아리나 학회를 찾아 활동하기도 하고, 반에 남아 활동에 열심인 친구들도 있고, 그저 가끔 술먹을 일이 생길 때나 술쩍 찾아와서 한바탕 놀고 얼굴 확인하는 이들도 있다. 그 갈래야 어찌되었든 소위 대학의 놀이 문화라 일컬어지는 응원과 술자리는 유효 기간이 오래가지 못한다. 사실 많은 이들은 ‘떠나가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관심 있고 생활공동체라고 생각하는 곳을 찾아 이동한다.

3. 누구를 위한 놀이문화?

그렇다면 3월에 그토록 신나던 놀이들에게서 왜 많은 이들의 마음이 떠나버렸을까?

신촌바닥 한복판에서 열심히 아카라카를 외쳐댔 때, 과나 동아리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을 때, 둥글게 만들어진 원 안에서 열심히 구령을 붙여 앞장서는 것은 누구인가..... 원 안에서 놀고 있는 남학우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암전히 서 있던 원 밖의 여학우가 바로 나는 아니었는지...-2001년 가을 여성제 풍류여인 자료집 중에서-

새내기 맞이 기간 내내 학교와 신촌에서 공동체의 어울림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루어지는 응원 행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성별화된 상당한 조건이 필요하다. 큰 목소리와 힘, 깡다구 등이 갖추어져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둥그런 원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이다. 흔히 깃들이 깃순이라고 하는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보통 깃돌이는 첫 날 꽤 분위기 잘 맞추고 적당히 오버하여 박수를 받은 새내기가 선배로부터 감투를 물려받게 되는데, 대부분 경우 남학우들이다. 이렇게 서로 친해지기 위해 누군가를 배제시키고 누군가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 문화가 오랜 시간 대학의 '공동체 문화'라고 불려왔다. 밤새 응원가를 부르며 놀던 그 곳에 여자 선배들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머리 속에 떠올려 보자. 아마 있었다 하더라도 2차, 3차로 옮겨 가는 중에 은근슬쩍 자리를 떠 밤이 깊어지면 어느새 남자 선배들과 새내기들만 남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었을 것이다. 특별히 여학우들이 남학우들에 비해 사교성 떨어진다고거나 모자란 존재도 아닐진대 어찌 해마다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새내기 성비는 균형을 잡아가는데 왜 과반에서 보이는 여학우의 수는 늘어나지 않을까. 그 많던 여학우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걸까. 사실 지금의 놀이 문화는 비단 여성들뿐 아니라 재미없는/재미있을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남성들 - 보통 목소리가 작거나 여성적 면모를 많이 가진 - 역시 배제해 왔다.

이 쯤 되면 오래 나오는 질문. "여자들이라고 못하나? 누가 빼놓은 것도 아니고, 여자들도 같이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러냐"고 말이다. 물론 할 수 있다. 여학우들도 소리를 지르고 같이 술먹고 시체가 되는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왜 해야 할까? 문제를 인식한 사람이 똑같은 방식으로 놀이 문화에 적응해야 할 이유는 없다. 대학 놀이 문화에 편입되려고 발버둥 칠 일이 아니라 그 문화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4. 변화를 위한 고민들

어느 순간부터 놀이 문화에 어울리지 못하는 이들을 '놀 줄 모르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문화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금의 놀이가 '누구의 기준'에 '어떤 놀이'에서 느껴지는 재미인지를. 집단적인 놀이 문화가 그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면 망설임 없이 이야기하고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도 재미있다'는 말이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의 문제제기를 우습게 만들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야 한다. 아카라카 섹시 버전과 FM자기소개를 여전히 하면서 여자 선배들이 오기를 바라서도, 새내기를 맞이해서도 안 된다. 새내기들을 '선배들이 뭔가 해주어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선배와 후배라는 관계에서 선배로서 '무언가 가르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태도는 권위의식의 또 다른 형태이자 새내기가 아닌 재학생들에게도 '무언가 해야 한다'는 압박이다. 그러한 압박 때문에 '더 잘 놀고, 더 잘 마시는' 선배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하는 것이다.

새내기들이 대학에 와서 처음으로 놀이 문화라고 접한 모습들, 새터 혹은 O.T에서 보여 지는 것들이 '대학 문화'를 대표하지도, 전체를 보여주지도 못한다. 흔히 '우리 단대의 특수한 문화', '전통'라는 이름으로 남성 중심적 문화를 공동체 문화라고 이해하는 관점과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대학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남성중심적 문화가 어떤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졌는가를 드러내고, 생활 공동체 자체를 새롭게 의미화해내는 작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다.